

## 성령의 열매(4) 평화 - 편안함을 뛰어넘어

로마서 14 장 16-23 절

### 1. 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요즘 저는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종교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4 차산업혁명시대에 기독교는 세상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내가 믿는 복음은 이 세상에 어떤 유익을 나눌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이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될 때, 교회는 한국사회에서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집단감염 뿐만 아니라 온갖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사회의 암덩어리처럼 취급되었고 지금도 그런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마주하면서 또 다른 면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종교는 필수적인 활동이 아닌, 취미생활과 같은 선택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경제활동**은 한국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필수적인 분야로 생각합니다.

**정치활동** 역시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정부의 치안이나 행정 서비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종교는 다른 취급을 받는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을 짓고 있는 듯 합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부수적인 것으로 여겨진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때문에 저는 고민이 많습니다. **정말로 우리 인간에게 종교란 경제활동보다 못한 것일까? 회사를 경영하거나 정부를 운영하는 것에 미치지 못하는 것일까?**

#### 4. 평화 - 편안함을 뛰어넘어

이것은 상당히 묵직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고민거리입니다. 언젠가 **조엘 코트킨의 “도시의 역사”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훌륭하게 성장한 도시들의 공통점을 간단하게 요약하여 제시합니다. “**성스럽고 안전하며 변화한 곳**”이 될 때 **도시는 성장한다고** 밝힙니다. 다시 말해, 도시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첫째는 활발한 경제활동이 있어야 하고, 둘째는 치안이 확실해야 하고, 셋째는 종교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경제와 치안만큼이나 신앙의 소중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 기독교 신앙은 개인의 영혼을 책임지고 돌보는 역할 뿐만 아니라 이 도시와 나라를 위해서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 2. 평화의 등장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17절**은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경제의 문제입니다. 돈의 문제입니다. 나아가 세계 무역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에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을 언급합니다. 오늘의 주제 평화와 앞서 공부했던 기쁨이 함께 등장한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미국 예일대학교 신학과 교수인 미로슬라브 볼프(Miroslav Volf)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좋은 삶’을 이루는 세 가지 축**이라고 말합니다.(Miroslav Volf and Justin E. Crisp eds. *Joy and Human Flourishing*, Fortress Press, 2015) 그러니까 인간이 좋은

#### 4. 평화 - 편안함을 뛰어넘어

삶 혹은 풍성한 삶을 살아가려면, **첫째 인간으로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필요**하고, **둘째는 이런 삶이 지속될 수 있는 상황을 누리는 것이 필요**하고, **셋째는 그 결과로 찾아오는 감정적 충족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가치 있는 삶이란 의로움을 추구하는 삶이라 할 수 있고, 그런 삶이 지속되는 상황을 가리켜 평화라고 하며, 그런 삶에서 누리는 감정이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좋은 삶이라는 말이죠. 먹고 마시는 문제와는 별개로, 좋은 삶을 위해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이 함께 작동하는 경우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특히 평화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누리는 경우보다 평화가 깨어진 상태로 살아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일반적인 한국어 인사말이 무엇입니까? “안녕” “안녕하세요.”입니다. 안녕이란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아무 탈이나 걱정이 없이 편안함”입니다. 왜 안녕이라고 인사합니까? 안녕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에게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합니다. 평안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평화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암과 투병하느라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서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부부관계 부모-자녀 관계가 삐그덕 거리면서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한국전쟁은 끝났지만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니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환경파괴로 인해 제 2의 코로나가 찾아올까 무서워서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 3. 평화의 다양한 얼굴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평화가 무엇인지 정의를 내려봅시다. **평화란 가치 있는 삶의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내 삶이 두려움과 결핍으로 부터 자유하고, 하나님과 이웃들 그리고 다른 모든 피조물과 만족스런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히브리어 샬롬의 의미입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Christopher Wright) 라는 학자는 평화를 보다 세분하여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만드신 평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 장 14 절과 15 절을 보십시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구절의 맥락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미 만드신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이 **평화는 하나님께서 '단번에 영원히' 성취하신 구원의 동의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이 만드신 평화**는 우리의 관심인 **성령의 열매로서의 평화**는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우리의 성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평화**는

#### 4. 평화 - 편안함을 뛰어넘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평화로 이끌어 줍니다.** 그것이 두번째 평화입니다.

**두번째 살펴볼 것은 하나님과의 평화**가 있습니다.

로마서 5 장 1 절과 2 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 하느니라**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며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 평화는 우리 마음과 양심의 평화, 죄책감과 두려움의 소멸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마지막 날에 내려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세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입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의 평화, 불안과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6 장 25 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입니다.

## 4. 평화의 반대말과 불량품

앞서 살펴본 평화에 대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평화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만드신 평화가 있습니다.**

**그 평화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평화를 선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평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주된 관심은 늘 마지막 세번째 평화입니다. 염려와 걱정에서 자유로운 상태, 그런 평화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유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화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전쟁입니까? 다툼입니까? 싸움입니까?

아닙니다.

**평화의 반대말은 불신입니다.**

마태복음 6 장 25 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시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염려가 사라지고 평화가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평화가 없는지 답이 나오지요. **평화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불신입니다.** 이것은 단지 영적인 영역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모두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평화의 불량품은 무엇일까요?**

#### 4. 평화 - 편안함을 뛰어넘어

**편안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합니다. 하지만 평화를 위해서 뭔가 구체적인 행동을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편안한 상태에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익숙한 것을 좋아합니다. 나와 비슷한 것을 선호합니다.

**우리는 편안함을 평화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평화와 편안함은 분명 다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편안함은 익숙한 환경에 머물러 있으려는 본능이라면,**

**평화는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는 가운데 서로를 이해하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5.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평화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네번째 평화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평화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4 장이 그걸 잘 보여줍니다.

**바울이 왜 하나님의 나라가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까요?** 로마 교회 안에 먹는 음식의 문제로 분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다툼이었습니다.

이들은 동일하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함께 교회 안에 있지만, 매우 다른 문화와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툼이 있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향해 편지를 씁니다. **서로를 받아들이고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에 대해 다투는 것을 삼가하라고 권면**합니다.

#### 4. 평화 - 편안함을 뛰어넘어

핵심이 무엇입니까? 서로 의견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역시 나와 같은 그리스도인이며, 나와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도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2 장 18 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골로새서 3 장 15 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결국 성경이 말씀하는 평화의 결론은 우리로 하여금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될 것을 요청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만드신 평화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평화를 선물하고, 또한 우리 마음에 염려와 걱정 대신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아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장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평화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편안함에 머물러 있지 말고, 평화를 실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몇 가지 구체적인 지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우리 안에 갈등을 더 키우기 보다는 해결하고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오해와 분열을 만드는 말과 행동을 삼가해야 합니다.**

**셋째, “미안해”라는 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넷째, 누군가 나를 비난하고 반대하는 경우 서둘러 변호하기 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 4. 평화 - 편안함을 뛰어넘어

**다섯째, 나에게 대해 적대적인 견해를 드러낸 상대방을 SNS와 같은 공개적인 방식으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여섯째, 다른 이들에 대해 모든 종류의 험담을 삼가하고 엄격히 비밀을 지키는 훈련을 합니다.**

**일곱째, 상대방의 삶에 대해 미처 몰랐던 부분을 발견하는 선한 관심을 갖습니다.**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